

솔라시도, 친환경 스마트시티로 새 출발

골프장 사업 대폭 축소... 태양광·자율주행 교통서비스 추가 스마트 팜 단지 조성...온실·에너지 절감시설·재배교육 등

영양·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솔라시도·일명 J프로젝트) 개발사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친환경 스마트시티'로 새 출발한다. 기존 골프장 조성 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대신 태양광 발전, 스마트 팜, 자율주행 기반 교통서비스 등을 새로 추가했다.

특수목적법인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은 20일 목포시 한 호텔에서 사업설명회를 하고 솔라시도 스마트시티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이 법인에는 전남도·전남개발공사·한국관광공사·㈜한양 등이 참여하고 있다.

조성 계획에 따르면 사업 대상지 중 토지매입 등이 가장 원활한 해남군 산이면 구성지구 2만1000㎡(634만평)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갖춰 전력을 자체 공급한다. 국내 최대 규모인 100MW 태양광 발전단지 와 세계 최대 규모인 255MW 에너지저장

장치(ESS)를 통해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해 저장한다는 복안이다.

솔라시도는 탄소 제로 교통정책을 적용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기술 중 하나인 자율주행 기반 교통서비스도 제공한다. 자율주행차 전용도로, 전기차 급속충전시스템 등 도로 위 교통인프라를 미래도시의 새로운 기반으로 구축한다는 의미가 있다.

국내 최대인 100ha 규모 스마트 팜 단지도 조성한다. 스마트 온실, 작물별 특화온실,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절감 시설 등을 갖춘다. 유통·재배교육·생산품질 인증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 지원해 농업 생산성 증대와 1800개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은 내년 상반기 이런 내용으로 개발계획을 변경해 늦어도 내년 7월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을 받기로 했다. 이후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솔라시도 스마트시티 조성 계획

등 선도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기존 개발계획의 핵심이었던 골프장은 7곳에서 36홀 규모 2곳으로 줄었다.

10년 남게 지부진했던 사업은 개발계획 변경으로 전환점을 맞게 됐지만, 재원이나 기술적 뒷받침은 사업 실현을 위한 과제로 남게 됐다.

윤진보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대표는 "간 시간이 필요했던 간척지 토지화가 지난 8월 등기 완료로 마무리됐고, 사유지 보상

협의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판단이 나오면 정리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약간의 시공간격 차질이 있을 수 있지만 2021년이면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재정과 기술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2005년 4월 전남도가 기업도시 시범사업 지정을 신청해 4개월 뒤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태동했지만 간척지 양도·양수, 실시계획 승인 지연 등으로 난항을 겪었다. /박정욱기자 jwpark@

연륙교 있는 전남 25개 섬주민 지원 내년부터 중단

건설 10년 후엔 육지로 간주 '최소 생활지원' 법 개정 추진

육지와 섬을 연결하는 연륙·연도교가 놓인 전남지역 25개 섬이 내년부터 사실상 육지로 간주되면서 거주 주민들의 생활 지원 등이 사라지게 됐다.

연륙·연도교가 건설된 10년 이후에는 육지로 간주한다는 법령 개정안이 올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지역에는 15개 시·군에 모두 2165개의 섬이 있을 정도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도서지역을 보유하고 있다. 전국 섬의 65%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 가운데 완도 고금도와 신지도, 약산도, 장흥 노력도, 고흥 지족도와 백일도, 옥금도 등 25개 섬은 연륙·연도교가 건설된 지 10년이 지난 곳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명사십리 해수욕장으로 유명한 완도 신지도나 여수 백야도, 장흥 노력도 등은 지난 2005년 연륙교가 건설돼 10년 경과 조항에 따라 육지로 간주된다. 따라서 내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하는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에서 제외되면서 국가개발 관리대상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전남 25곳 등 전국적으로 45곳의 섬이 연륙이 10년 경과되면서 사실상 섬이 아닌 육지가 된 셈이다.



마스크 이렇게 써요 20일 오전 광주시 북구보건소 직원들이 중흥어린이집 원생들을 대상으로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는 올바른 마스크 쓰는 법을 교육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이에 따라 이들 섬은 내년부터 국가 지원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고 일반 육지와 동일시된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당 운영일 의원(해남·완도·진도)이 '도서개발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기

획재정부의 반대와 의원들 간 이견 차이로 올해 처리가 무산됐다.

이 개정안은 연륙교 건설 10년이 지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도서를 관리대상 도서로 지정해 최소한의 주민생활지원을 지속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연륙 도서의 경우 교통여건은 나아졌지만, 어업기반시설이나 재해예방시설, 식수 공급시설, 연륙교 개·보수 비용 등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점 때문에 법 개정이 추진되어 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공공기관 내년 2만3000명 정규직 채용

코레일 1600명·한전 1586명·전남대병원 830명

정부가 일자리 확대 정책을 전면 추진하는 가운데 속칭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이 내년엔 약 2만30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한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부설기관 등 353개 기관 중 323개 기관이 2만2876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각 기관 사정에 따라 실제 채용 인원은 다소 변동될 수 있으나 올해 채용 인원(잠정치) 약 2만2000명보다 늘어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7년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에서 공공기관이 내년 채용 인원 가운데 절반 이상을 상반기에 뽑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관별로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1600명 선발 계획이 눈에 띈다. 2012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수년간 코레일 연간 정규직 채용 규모는 166~505명에 그쳤는데 내년에는 대폭 늘어난다.

한국전력공사(한전)는 1586명을 뽑기로 했고 이 가운데 300여 명을 고졸 인재를 채용한다. 2016년에 1천412명을 선발한 것을 제외하면 2012년 이후 올해 3분기까지 연간 정규직 채용이 678~1019명 수준이었는데 내년엔 대폭 늘어난다. /연합뉴스

이밖에 국민건강보험공단(1274명)과 근로복지공단(1178명)이 대규모 채용을 계획하고 있다. 경북대병원(804명), 부산대병원(740명), 전남대병원(830명), 충남대병원(554명), 강원대병원(443명), 경상대병원(485명), 분당서울대병원(390명), 서울대병원(379명), 충북대병원(313명), 국립암센터(199명) 등 주요 의료 공공기관도 수백 명씩 채용한다.

한국수력원자력(395명), 한국중부발전(75명), 한국남동발전(52명), 한국남부발전(62명), 한국동서발전(166명), 한국서부발전(90명), 한국가스기술공사(52명), 한국가스공사(132명) 등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도 적지 않은 인력을 새로 채용한다.

대한적십자사(366명), 국립생태원(119명), 국민연금공단(273명), 신용보증기금(100명), 주택관리공단(194명), 중소기업은행(219명), 한국도로정보공사(200명), 한국도로공사(250명), 한국농어촌공사(275명), 한국산림복지진흥원(106명), 한국수자원공사(228명), 한국토지주택공사(250명) 등도 각각 100명 이상 규모로 정규직 채용을 추진한다. 강원랜드도 내년엔 68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전남 홍어 어획량 늘린다

내년 6월까지 327t

전남 홍어잡이 어선에 허용된 어획량이 늘면서 어업인 소득 증대가 기대된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내년 6월까지 지역 참홍어잡이 어선 6척에 배정된 총 허용 어획량(TAC)이 327t으로 결정됐다. 이는 전국 총허용어획량(368t)의 89%에 이르는 규모다.

그동안 매년 총허용어획량을 산정하면서 연조를 기점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7월 1일을 기점으로 하기로 했다. 시행과정에서 이번에는 산정 기간을 1년 6개월로 적용됐다.

기간은 6개월이 늘어났지만, 어획량은 올해 1년 치(180t)의 80%가 넘는 147

t이 늘었다.

전남도는 허용어획량을 설정해 어업인과 함께 자원관리에 노력해온 결과라고 평가했다. 전남도는 올해 배정량 327t 가운데 유보량 30t을 뺀 297t을 어선 6척에 할당하고, 어업인들에게 배분량 할당 증명서를 발급했다.

전남 참홍어 허용어획량 제도에 참여하는 어업인들은 지난해 흑산도 해역에서 어선 1척당 6억~8억원씩 모두 44억원의 어획고를 올렸다.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해양수산부 장관 관리 품목은 살오징어, 고등어, 전갱이, 도루묵, 대게, 키조개, 붉은 대게, 꽃게 등 모두 8개다. 시·도지사 관리 품목은 참홍어, 개조개, 제주 소라 등 3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임야
바로 삽니다. 010-6838-1230

연수원·요양병원 변경 가능 호텔
· 구례 산동 온천지구, 4층, 대형 모델
· 대 573평, 건 683평, 객실 58개
· 전체 유휴리, 연3억 이상 순수익가능
· 매 18억, 주인직 010-3605-50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태양광 발전소 삽니다! 팝니다!

태양광 100K·200K·300K·500K·1메가

- ▶ 견적 설계·시공(지상 임야 노지, 아파트, 주택)
- ▶ 태양광 부지 매입합니다.

태양광 발전소 관리 전문

- ▶ 각도 조절, 잡초 제거(물막, 애초기)
- ▶ 모듈 청소(발전량 상승) 관리해드립니다.

태양광 발전 전문기업

※ 영업사원 모집

(주)동현태양광ENG
☎ 063-225-1116
상당 010-8813-4770

정부지원 농·어촌 태양광 사업안내

에너지관리공단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가능**
농협 **90% 융자지원사업 / 선착순 접수**
연금발전소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99KW설치시 연금처럼 월250만원 고박고박 (25년동안 년평균 3,000만원)

▶ 실제 농·어업인에 한함(축산업 종사자 우선접수 합니다)
▶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 있으신 분

▶ 평면 빌려주셔도 임대료를 선불로 드립니다 (5,000평 이상)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NAVER 해가온에너지 검색

100년 기업 **해가온에너지**

상당 전국대표 1588-1543
기술이사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5층